해양수산부 | 동정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1. 12.(목)

‘농어민과의 대화’ 계기, 가리비 양식업계의 목소리 듣는다

-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CPTPP 가입 시 가리비 업계에 미칠 영향과 현장의 우려 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12일(목) 서울에서 가리비 양식 어업인·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CPTPP 가입시 시장 개방 영향을 품목별로 면밀히 살펴보고, 품목별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리비는 해만가리비(경남, 전남)와 참가리비(강원) 등 지역별로 주로 생산하는 품목이 다르고, 수온과 생육 환경에 따라 양식 기간과 생산 여건에도 차이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국내 생산량과 중국 등 수입산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문제를 비롯해, 양식 환경 개선, 생산비 부담 완화, 국산 가리비의 판로 확대 등 가리비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남 차관은 “가리비 업계가 이미 수입산과의 경쟁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리비 양식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피해 보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도윤정 (051-773-5420)
		담당자	사무관	박지수 (051-773-54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체불가 대한민국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